

# 글로벌 창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참가후기

*Global Entrepreneurship Workshop:  
Sustainable Enterprise  
Australia, Griffith University*



## 세계는 넓다? 세계는 좁다! 내 한계의 벽을 깨뜨린 경험

2기 백다예 /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호주 글로벌 기업가 정신 역량강화 워크숍은 내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해준 매우 소중한 경험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배운 학문적 지식이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앞으로 보게 될 세계관, 인생관을 바로 잡는 터닝 포인트가 되었기 때문이다.

먼저,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은 지속가능한 경영에 대한 것이었다. 생전 들어보지 못한 개념들에 대해 배우고 그것을 삶에 적용시키니 전에는 몰랐던 기업들의 지속가능한 비즈니스에 대한 노력들이 눈에 보이면서, 미래를 구현하는 기업가의 역량을 한층 더 신장시킬 수 있었다. 또한, 여러 교수님들의 피드백과 강의를 통해 Sustainable이 비즈니스가 될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게 되었다. 전에는 과연 환경, 사회, 경제를 위한 비즈니스가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졌던 반면 이제는 이것이 아니면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시대가 왔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2주간의 프로그램을 마무리 하는 날, 우리는 프로젝트 발표와 함께 아침을 시작했다. 발표를 마치고 드는 생각은, 역시나 아쉬움 뿐. '조금만 더 시간이 있었다면 더 완벽한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과 함께 다시 다가올 만회의 기회가 있을지 나 자신을 다독거리며 또 다른 시작을 기대하게 되었다.

다른 팀들의 여러 프레젠테이션들을 보면서 지속가능한 경영이 기존의 다소 심심했던 아이템을 획기적으로 바꿔게 한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지속가능한 경영(환경, 사회, 경제)을 도입한 영재기업인들의 프레젠테이션으로 그동안 배운 수업들을 돌이켜보고 앞으로 아이템을 구상할 때 고려해야 할 매우 중요한 key point를 얻게 되어 매우 기쁘다. 또한, 매킨토시 교수님께서 우리의 아이템이 매우 좋다고 다시 한 번 칭찬해주셨을 때, 정말 사업제안서를 작성해서 시도해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두 번째로 깨달은 것은, 서양 사람들의 삶의 문화였다. 나는 교육생들 대표로 도서관 토론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너무 긴장한 나머지 아침 일찍 도서관을 도착했을 때, 나를 맞아준 건 우연히도 내가 참가하는 프로그램의 연사인 Fredrick이었다. 그를 처음 보고 나는 문화적 충격을 금치 못했다.

토론이고 도서관에서 주최하는 프로그램이라 정장을 입고 온 나와는 다르게 스케이트보드를 탄, 한 개구쟁이 아저씨가 그 프로그램의 주최자였던 것이다.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매우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다. 마지막 문화적 충격은, 오후에 도서관에서 워크숍을 진행했는데 꽤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으며 내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가 필기하면서 강의를 듣는 모습에 이들이 지속가능한 경제와 비즈니스에 매우 관심이 많고, 나이에 상관없이 열정을 가지고 이에 대해 고민하고 몰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매우 신기하고 놀라운 문화적 충격이었다.

세 번째로 깨달은 것은, 세상은 좁다는 것이다. 그리피스 대학교에서 재학생들과의 교류시간에 나는 프랑스, 싱가포르, 독일 등의 국가에서 온 국제학생들과 친구가 되었다.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 느낀 것은 그들은 해외를 자유롭게 오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세계관이 잡혀 있다는 것이었다. 금전적인 상황을 떠나서 우리는 해외를 나간다면 무언가 대단하다는 선망의 눈길을 보내지만, 그들은 마치 부산에서 서울 가 듯 세계를 오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전제가 깔려있어 매우 신선하게 느껴졌다.

특히, 매우 인상 깊은 세계관을 가지신 매킨토시 교수님과 차세대 인재가 가져야할 세계관에 대해 대화를 나누어보았는데, 기존에 내가 가졌던 짧았던 생각에 대한 반성이 들면서, 한국에서만 성공하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을 깨우칠 수 있었다.

다소 짧기도 하고 길기도 한 2주간의 프로그램, 차세대 영재기업인 글로벌 역량 강화 워크숍은 한없이 작았던 나 자신을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스스로 만들었던 나의 한계의 벽을 깨뜨리게 된 매우 감사한 경험이다. 앞으로 이 경험을 토대로 더 크게 성장하는 차세대영재기업인이 되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소중한 계기를 만들어 주신 교육원에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



## 나를 돌아보게 한 어제, 다시 도전하는 오늘

### 1기 서수정 / 서울시립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

이번 워크숍은 전체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특히 왜 지속가능한 경영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진심으로 이해하고 공감하게 되는 기회가 되어서 좋았다. 우리는 환경 안에서 살고 있고, 환경의 테두리 안에 조직이라는 작은 테두리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조직이라는 작은 테두리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당연히 그것보다 큰 테두리인 환경이 잘 유지되어야 함을 이해 할 수 있었다. 또한 주제 자체가 이슈화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흥미를 가지고 수업을 들을 수 있었고, 비즈니스로서의 시야를 바꿔보는 것이기 때문에 적용하기 힘든 분야의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해도 파고들면 새로운 적용점을 찾아 낼 수 있었다.

우리 팀이 처음 가지고 간 사업 아이디어의 경우 이미 지속가능한 경영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이디어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단단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것 같다. 지속가능한 경영이나 사회적인 기업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게 되고, 평소에 잘못 알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바로잡을 수 있어서 좋았다. 결과적으로는 팀 자체에서 현재의 아이디어를 멈추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보기로 결론이 도달했지만, 일단 하나의 비즈니스를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각도에 대해서 공부한 것 같아서 좋았다.

다만 samford에서 한 프로그램은 아쉬운 점이 많았다. 우선 처음에 자료집으로만 회사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서 다양한 분야의 일을 한다는 것만 알 수밖에 없었다. Samford의 경우 일반적인 기업이 가진 형태와는 다르게 특정한 지역에 뿌리를 두고 그 지역의 모든 분야에 대한 비즈니스에 관여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사람들에게 설명을 들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 물론 학생의 신분으로 회사에 가서 사람들과 의견을 나눠보는 일 자체로도 좋은 경험이 되었지만 좀 더 많은 준비와 시간이 들어가면 원래 취지를 더 잘 만족하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교육과정을 떠나서 내 자신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많다. 우선 처음 워크숍에 참가하기 위한 준비를 할 때는 무엇인가를 얻거나 성취하겠다는 생각은 좀 부족했었다.

이 워크숍 자체가 대회를 통한 결과로 주어진 부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다만 가서 영어를 많이 사용하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문화적인 부분을 많이 배우고 와야겠다고만 두루뭉술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내가 원래 기대했던 것만큼의 성과를 얻지 못한 것에는 이러한 이유도 있을 것이다.

도서관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많이 체험해보겠다는 내 생각과 맞아 떨어져서 즐겁게 열성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 교육 프로그램 하나하나가 사람들의 문화나 일상에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한 상태로 수업을 들으니 더 호의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게 되고 따라서 더 높은 집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다만 이런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면 단편적인 체험활동의 나열에 지나지 않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점을 알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

나 자신에 대해서 아쉬움을 가진 만큼 반성하는 기회도 되기도 했다. 처음 대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전공을 공부하는 일은 많이 했지만 나 자신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는 일을 소홀히 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번 교육을 다녀오고 배운 것을 되짚어 나가면서 내가 잘못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 호주에서 한국의 지속 가능성을 고민하다

2기 이선태 / 한양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호주에 가기 전 가장 걱정했던 것은 영어였습니다. 동시에 가장 기대했고 또 이루고 싶었던 일은 영어로 사업 발표를 해보는 일이었습니다. 사업을 세계 시장에 내놓으려면 일단 의사소통이 되어야 하고 그 수단은 현재 영어이기 때문입니다. 호주에 짧게 머무른 동안에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발표 때는 대본을 외우지 않고 말할 내용만 기억해두었다가 즉석에서 영어로 발표하였습니다. 2주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영어도 전보다 조금 입에 붙었고 영어로 사업 발표하는 일도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호주에 영어를 배우러 간 건 아닙니다. 호주에 간 이유는 지속 가능 경영을 공부하기 위해서입니다. 결론적으로 호주에서 배운 지속 가능 경영은 미래에 기업가가 될 사람으로서, 시기도 적절하고 아주 유익했던 주제였습니다. 사업 아이디어는 있지만 아직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는 입장에서 자기 사업 혹은 산업을 다른 관점으로 보게 해주었습니다. 게다가 그것은 훌륭한 관점입니다. 사람들과 지구 그리고 그 이상을 모두 고려하는 지속 가능한 사고방식입니다. 이것이 호주 연수의 최대 수확이라고 자부합니다. 제가 배운 모든 내용들 함축하면서 단순하게 표현한 한 문장이 있습니다. 제레미 교수님이 말씀해주셨습니다. 'Green makes money'

친환경적이거나 사회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곧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할 때 항상 생각해 볼 문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제 자신의 변화는 호주 연수를 통해 얻은 진화입니다. 그리고 한국인으로서도 굉장히 가치 있는 주제입니다. 짧은 시간에 발전했고 앞으로 계속 나아가려는 우리나라가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게 된다면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호주에서 지속 가능 경영을 공부하면서 한국에서 가져 온 사업 아이디어에 새로 배운 내용을 접목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원래 저희 팀의 아이디어는 사회적 기업에 가까웠고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이 지속 가능 경영과 꽤나 관련이 깊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저희 아이디어를 들으시고 아이디어가 이미 지속 가능한 면이 존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호주에서 저희 아이디어는 큰 발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사업 아이디어를 놓고 다른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사업 주체와 사업 대상, 고객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과 지구와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호주 연수 중 학교에만 있지 않고 여러 기관 등을 방문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도서관 프로그램이 맘에 꼭 들었습니다. 일단 도서관의 개념이 제가 다니는 대학 도서관이나 지역 도서관과는 많이 다른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책을 빌리고 공부하는 공간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원한다면 책을 볼 수도 있고 컴퓨터를 사용할 수도 있고 파티를 하거나 음악을 연주할 수도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서울시 시민청과 조금 비슷한 장소입니다. 도서관에서는 주로 직접 만들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그 점에 감명 받았습니다. 자발적으로 그리고 역동적으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공포영화 예고편도 만들고, 컴퓨터도 조립하고, 3D 프린터를 다뤄보고, 게다가 재미있는 생물 실험도 했습니다. 어쩌면 도서관에서 배운 내용들은 지속 가능 경영과 조금 동떨어져 보일 수 있지만 그 장소, 그곳에서의 생활은 정말 가치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또 호주에 머무는 동안 홈스테이를 하였고 너무나 좋았습니다. 학교에서보다 홈스테이를 하면서 외국 친구들과 더 많은 교류를 할 수 있었습니다. 홈스테이에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 문화를 직접 접한 건 아니지만 그들과 이야기 하면서 좀 더 큰 세상을 느꼈습니다. 물론 영어로 이야기해서 불편한 점이 있었지만 그런 점은 서로 이해 할 수 있었습니다.

해외 연수를 갈 때는 우리나라에서 쉽게 배우지 못할 것을 주는 곳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호주 연수를 통해 지속 가능 경영에 대해서 공부한 것은 만족스럽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얻지 못 할 지식, 경험, 사고방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 지속가능 경영이 접목된 'Shall we guitar'의 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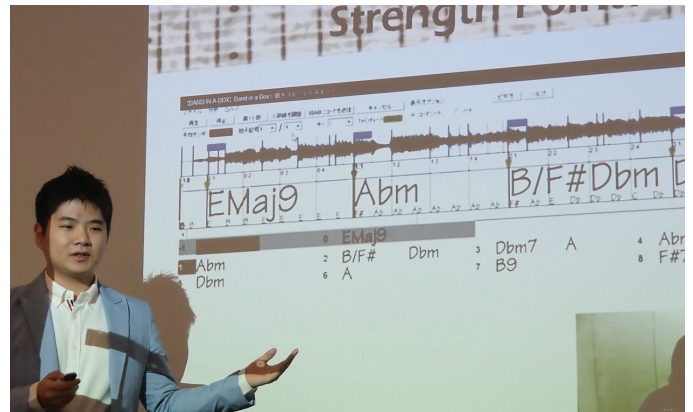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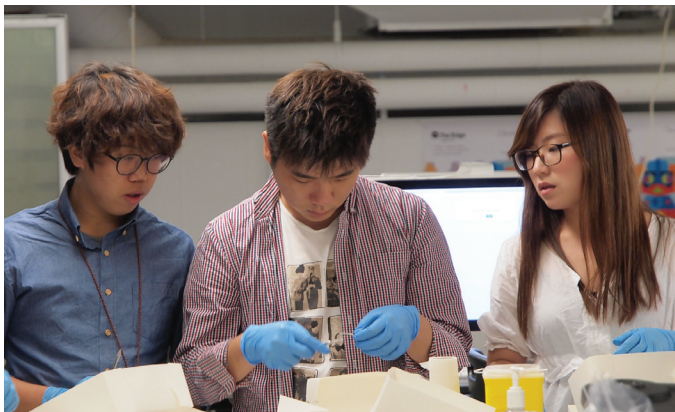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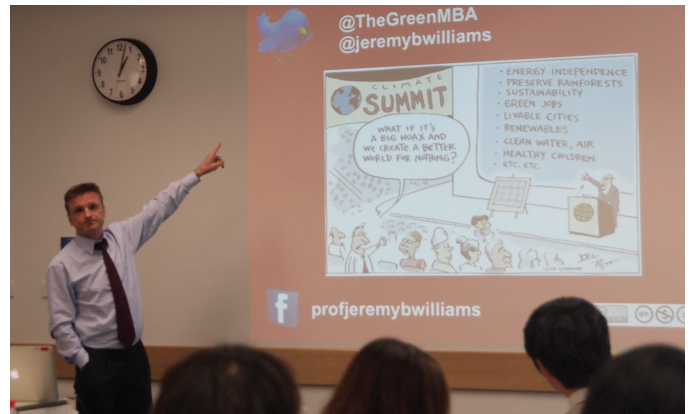
2기 이하늘 / 풍동고등학교

우선 이번 연수를 다녀오게 되어 정말 기쁘고 감사하다는 말을 먼저 하고 싶습니다. 해외에 나가본 것이라고는 초등학교 6학년 때 태국에 갔다 와본 것이 전부인 저에게는 호주로 2주 동안이나 교육을 받으러 간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 틀림없습니다. 호주에 가기 전에는 지속가능 경영에 대해서 크게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니다. 막연히 호주에 가면 영어가 많이 늘겠다고만 생각을 하였습니다. 물론 영어 실력도 많이 늘었습니다만, 소프트웨어를 전공하고 싶어 하는 저에게는 더욱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라는 직종의 특성상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고, 그 문도 넓습니다. 초기 자금도 굉장히 적게 들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창업이 절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번 교육에서 지속가능경영을 배울 수 있어 정말로 좋았습니다. 앞으로 직접 창업을 하는 것이 꿈인 저에게는 꼭 필요한 교육이었기 때문입니다. 지속가능경영이라는 말의 의미처럼 기업이 계속 존속해 나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야말로 저에게 적합한 교육이었습니다.

물론 지속가능경영에 대해 배운 강의시간 이외에도 저는 도서관에서 했던 활동 역시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평소에 주위에서는 절대로 하지 못하는 체험활동을 국립 도서관에서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고, 자칫 지루해 질 수 있었던 2주간의 교육과정에서 약간의 휴식시간과 같은 느낌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장 재미있게 참여했던 프로그램인 만큼 가장 아쉬운 점도 많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아침 10시에 모여서 4시까지, 총 6시간이라는(심지어 점심시간이 포함된)시간이 모든 활동을 전부 체험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하였습니다.

호주에서 돌아온 뒤에는 다시 한국의 생활로 돌아왔습니다. 눈을 뜨면 다시 홈스테이 집 천장이 보일 것만 같고, 언제나처럼 소식하시는 아주머니가 싸주는 빈곤한 점심을 먹을 것만 같았지만, 지금 저는 한국에 있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한 가지 호주에 가기 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제는 정말로 어떻게 행동해야할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또 저를 제외하고 모두 대학생인 형, 누나들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나태했던 저는 호주에 두고, 이제는 빠릿빠릿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입시를 준비하면서 지속가능 경영이 접목된 'Shall We Guitar'의 개발에도 힘 쓸 생각입니다.



## 함께 만드는 긍정적 가치, Sustainable Business

### 1기 장세윤 / 포스텍 신소재공학과

이번에 Griffith University에서 했던 차세대 영재기업인 글로벌 워크숍은 새로운 눈을 뜨게 해준 프로그램이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만 이야기하던 학생들이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다른 나라는 얼마나 Sustainable Business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몸소 체험할 수 있었다.

특히 교수님들과의 소통이 한국보다 자유로웠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고 다양한 사례들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다. 물론 한국에서도 교수님들께 질문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만, 호주에서 청바지를 입은 교수님 주위로 책상을 뒤로 밀고 둘러앉아서 학생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며 수업했던 그 분위기를 잊을 수 없다.

하루는 수업 중 스스로 지속가능경영에 대해 정의 내리는 연습을 해보았고 나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지속가능경영이란 사회 속에서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가치를 창출해내는 것’. 이처럼 교수님의 설명이 주(main)가 되는 수업이 아닌 학생이 주체가 되는 수업. 학생들에게 Sustainable이라는 단어를 끌어내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수업했던 기억들이 모두 소중하게 느껴진다.

외부 기업을 방문하였을 때도 그들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자유롭게 토론하기를 권유하였다. 형식적이지도 관료주의적 이지도 않고,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의 의견이 존중되면서 자유롭게 토론하니 사업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단점에 대한 극복방안도 찾을 수 있었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또한 사소한 질문까지 꼼꼼히 챙기는 연사와 학생들의 방식에서도 감명 받았다. 물론 이번 워크숍을 참가한 학생들 중에 아이템이 지속발전가능성과 맞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기존에는 지속발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아이템에서 가능성을 찾아낼 수도 있고, 자신의 아이템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지속발전가능성 뿐만 아니라 호주라는 외국에서 이루어진 만큼 문화적인 부분에서도 느낀 점이 많다.

첫 번째, 홈스테이를 하면서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들과 직접적으로 부딪히고 관계를 형성하면서 그들만의 문화를 빨리 익힐 수 있었다. 두 번째, 내가 가장 좋아한 도서관. 평화롭고, 여유로운 분위기에서 아이디어를 마구 발산할 수 있을 것 같은 공간이었다. 또한 도서관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도 사람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세 번째, 여유와 햇빛이 인상 깊었다. 햇빛이 매우 강하기는 하지만 아침부터 햇살을 맞으면 기분이 좋아졌다. 또한 점심시간에 잔디나 야외에서 천천히 즐기면서 여유를 만끽하는 모습은 한국에서 느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낭만적이었다. 사람들도 시간에 쫓기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느긋하고 조용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을 보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다. 결국 조금씩 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최대효율을 찾아서 일을 하는 것이 이 나라가 선진국으로 갈 수 있었던 비결 중 한 가지가 아닌가 싶다. 마지막으로, 이번 프로그램을 갈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선택된 것이 아니라 많은 짐을 지고 선발된 것이다. 그렇기에 이런 프로그램에서 배우고 느낀 것을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을 가지고 더 발전시켜서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회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해주시고 운영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넓게 보자! 가능성은 어디에나 존재하는 보물

1기 이석재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국제융합부

그동안 일상생활 또는 학교 등에서 배울 없었던 것들을 접할 수 있었고, 가지고 있던 의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또한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시야를 가질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환경문제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후변화나 자연재해들은 원래 일어나던 현상이 아닌가. 기후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항상 변해왔고, 자연재해는 언제든 일어났습니다. '어떤 곳에서 빙하가 녹으면, 다른 곳에선 빙하가 생기고, 어떤 곳에서 가뭄이 일어나면, 다른 곳에서는 홍수가 나는 것이 자연적인 것이고 자연이 잘 조절하고 있는데 환경문제란 것에 왜 이렇게 민감할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연수에서 Griffith 대학 ASPC소속 제레미 교수님의 답변을 통해 저의 생각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말하시길 '물론 역사적으로 기후는 변화하고 있다. 어디서든 재해나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다이나믹하게 변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구가 스스로 조절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듣고 환경에 대한 제 생각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또 환경문제가 미래의 것이 아니라 지금 느끼는 것을 느꼈습니다. 환경문제로 인한 문제들은 미래의 것이나 우리 후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이 와 닿았습니다.

"우리는 죽은 행성에서 사업을 할 수 없다. 돈을 벌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경영을 하는 사람이다. 사업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환경도 같이 생각하라."는 말씀들이 저에게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 이후에 지속가능한 경영에 대해 배우고, 그린워시 등을 배우며 환경문제가 자선단체나, 캠페인이 아닌 사업이 될 수 있던 것을 느끼고 새로운 시야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영이 무엇인지에 대해 느껴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제 아이디어를 좀 더 구체화 시키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으며 제 목표의 90%이상을 달성했다고 봅니다. 그리피스 대학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영이 무엇인지,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또 제 사업아이디어가 갖고 있었던 아쉬운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게 되었고, 새로운 친구와 같이 힘을 합쳐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거의 모든 목표를 달성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제가 호주에서 가져온 아이디어를 직접 활용하고 발전시킨다면, 제 남은 목표의 10%를 더 채우게 될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호주 사람들의 삶을 접해볼 수 있었고, 그들과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다면 꼭 참여 하고 싶습니다.



**YOUR DREAM IS OUR FUTURE**

